

조선시대 의과시험의 실제 사례에 대한 고찰

국수호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A Study on the Actual Case of Medical Examination in the Joseon Dynasty

SooHo Kug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The appointment of medical officials during the Joseon Dynasty was conducted through medical testing. To date, most of the research done on these tests has focused on the testing system and its formal qualities without any study of actual test cases. This paper considers the significance of the medical examination format and contents through a test paper contained in the book "Joseonuihaksageupjilbyeongsa (朝鮮醫學史及疾病史)" by MikiSakae (三木榮). The literature confirms that the medical exam paper is the same format as "Gangji (講紙)," and that the test format called "Gangseo (講書)" is a very high-level test. Therefore, analysis of the case suggests that the format of the medical examination reflects the demand for high-quality medical learning for applicants. This consideration is meaningful because existing medical test papers are very rare.

Key words : Korean medical history, Joseon Dynasty, civil service examination, medical test

I. 서론

신진사대부를 주축으로 건국된 조선은 통치이념으로서 유학을 숭상하였다. 그리고 조선 정부는 관리들을 임용함에 있어서 유학적 이상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과거시험을 조선시기 전반에 걸쳐서 활용하였다. 기술직의 경우에도 기술직을 선발하는 과거시험인 雜科를 통하여 인재를 선발하였다. 醫學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活人之方'으로서 매우 중시¹⁾하였으며 醫科를 시행하여 醫官을 선발하였다. 이렇게 선발된 의관들은 위로는 왕실과 중진 대신들의 치료와 질병의 예방에 힘썼으며 아래로는 빈민들의 질병 구제 및 전염병 방지의 업무를 하였

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 학술적으로는 『醫方類聚』와 『東醫寶鑑』과 같이 한국 한의학에서 중요한 의서를 편찬하는데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醫科시험을 다루는 이전의 연구로는 크게 제도에 대한 연구, 의과합격자의 기록인 『醫科榜目』, 『醫科八世譜』 등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의과시험에서 사용된 의학교과서에 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로는 醫科시험 자체에 대한 연구가 존재²⁾하며 이와 더불어 雜科시험 전반에 대한 고찰을 하면서 醫科시험이 같이 다루어지는 경우³⁾도 있다. 의과합격자의 기록인 『醫科榜目』, 『醫科八世譜』 등에 대한 연구로는 이러한 기록물 종류에 대한 전반적인 계보적 연구를 진행한 한미경의 연구⁴⁾가 있다. 그리고 『醫科榜目』을 토대로 영조와 정조시기 의과 합격자의 각 씨족 및 연령을 분석한 김진의 연구⁵⁾, 『醫

접수 ▶ 2021년 04월 30일 수정 ▶ 2021년 05월 03일 채택 ▶ 2021년 05월 17일
교신저자 ▶ 국수호,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 ***-****-**** E-mail : koogssoho@khu.ac.kr

- 1) 김진. 「조선시대 의관선발 - 영조 정조시대 의과방목 분석을 중심으로 -」. 동방학지. 1999;104:2.
- 2)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담구당. 1981.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東京:醫齒藥出版株式會社. 1962. 孫弘烈.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 서울:修書院. 1988. 김진. 「조선시대 의관선발 - 영조 정조시대 의과방목 분석을 중심으로 -」. 동방학지. 1999;104:1-93.
- 3)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 교육의 변화와 특성」.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14;13(1):33-63.
- 4) 한미경. 「조선시대 의과 입격자 기록물의 계보적 연구」. 서지학연구. 2018;75:193-212.
- 5) 김진. 「조선시대 의관선발 - 영조 정조시대 의과방목 분석을 중심으로 -」. 동방학지. 1999;104:1-93.

科八世譜』의 자료적 특성 및 그 의미에 대한 고찰을 진행한 이남희의 연구⁶⁾가 존재한다. 그리고 醫科시험에 활용된 의학교과서에 대한 연구로는 박훈평의 연구⁷⁾가 존재한다. 이들 연구들을 통하여 의학교시의 방법과 절차 등 제도적 내용과 의과 합격자들에 대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의과시험의 실제 시행의 결과물인 시험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본 논문은 우선 조선시대 의과시험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본 후 三木榮의 저서 『朝鮮醫學史及疾病史』에 남아있는 실제 의과 시험지를 토대로 시험 형식이 문과에서의 講書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고 또한 시행된 시험 내용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대상으로 삼은 시험지가 1건에 불과하다는 제약이 존재하기는 하나 현존하는 의과시험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볼 때 본 논문은 의과시험을 연구함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리라 본다.

II. 본론

1. 조선의 의과시험방식 및 임용 승진

조선시대에 醫科시험을 보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했다. 첫째, 典醫監이나 惠民署에 入屬하여 醫學生徒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것, 둘째, 前銜官일 것, 셋째, 7품 이하의 관리로서 의학에 조예가 있을 것 등이 그것이다.⁸⁾ 이 중에서 가장 주된 경로는 典醫監이나 惠民署에 入屬하여 醫學生徒가 된 후 의과에 응시하는 것이었다. 醫科에 응시를 하지 않더라도 실무직을 맡을 수는 있었다. 하지만 從6品 主簿 이상의 고위 기술 관직은 雜科 합격자만 임명될 수 있었기 때문에 승진을 위해서는 醫科에 응시하는 것이 중요하였다.⁹⁾ 醫學生徒가 되기 위하여서는 천거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는 별도의 시험이 아닌 추천과 심사만으로 선발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陰陽科의 觀象監 관련 자료들의 연구를 통해 살펴보자면 천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完薦’이라고 표현하였고, 完薦을 통해 觀象監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자를 ‘願屬者’, 完薦을 통해 선발된 인원들을 ‘完薦者’라고 하였으며, 觀象監에 入屬이 되어 교육을 받는 이들을 生徒라고 지칭하였다.¹⁰⁾ 完薦의 과정은 피천자가 친가와 외가의 四祖(결혼한 경우는 처가 포함)에 관한 문서를 祿官廳에 제공하고 祿官廳의 회의결과에 따라서 완천의 가부가 결정되었으며 完薦 이후 생도의 결원이 생기면 시험을 거쳐 결원을 충당하게 되었다.¹¹⁾

이렇게 醫科시험의 응시자격을 얻게 되면 式年試 혹은 增廣試에 참여하여 시험을 볼 수 있었다. 式年試는 해당 년도의 干支가 子, 卯, 午, 酉로 끝나는 해에 실시되는 시험으로써 3년에 한 번 있었다. 增廣試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되는 비정기 시험이었다. 式年試에 있는 醫科시험과 增廣試에 시행되는 醫科시험은 시험과목과 선발 인원이 기본적으로 같았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醫科는 다른 잡과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3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한 式年試의 初試와 覆試만을 거쳐 선발하였으며 文科와 武科처럼 殿試를 보지는 않았다. 初試는 典醫監에서 18명을 선발하고 覆試는 典醫監 提調와 함께 禮曹堂上이 최종 9명을 선발하였다.¹²⁾ 增廣試에서 선발하는 인원수에 대한 정보는 朝鮮後期에 편찬된 『續大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續大典』에 의하면 增廣試에서 선발하는 인원수는 『經國大典』의 式年試에서 선발하는 인원수와 동일하며 大增廣試에서는 式年試의 선발인원보다 醫科初試에서 4명이 醫科覆試에서 2명이 더 선발되도록 규정되었다.¹³⁾

과거시험 이외에도 十學 중 醫官과 律官의 경우에는 取才라는 제도를 통해 기술관의 자리에 선발 될 수 있었다. 取才는 실무직책을 맡은 하급관원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로서 吏曹, 禮曹, 兵曹에서 실시되었으며 雜科에 속하는 醫科 取才는 禮曹에서 주관하였다. 取才의 목적은 잡학생도나 잡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분야에 대한 학습을 권장하는 것과 그들의 등용에 있었는데 그 내용은 임명, 승진, 轉職, 補職 등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다.¹⁴⁾ 取才는 太宗 때 시작되었으며 원래는 四仲月에 시행되었으나 太宗16년

6) 이남희, 「조선 후기 의과팔세보의 자료적 특성과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2010;52:231-262.

7) 박훈평, 「조선시대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6;29(2):1-16.

8) 김진, 「조선시대 의관선발 - 영조 정조시대 의과방목 분석을 중심으로 -」, 동방학지, 1999;104:5.

9) 이남희, 「조선 후기 잡과교육의 변화와 특성-잡학 생도와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14;13(1):35.

10) 박권수, 「조선 후기 관상감 입속자 연구」, 한국사연구, 2019;187:293.

11) 박훈평, 「19세기 후반 典醫監 醫學生徒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3;26(1):4.

12) 『經國大典』 「禮典·諸科」.

13) 『續大典』 「禮典·諸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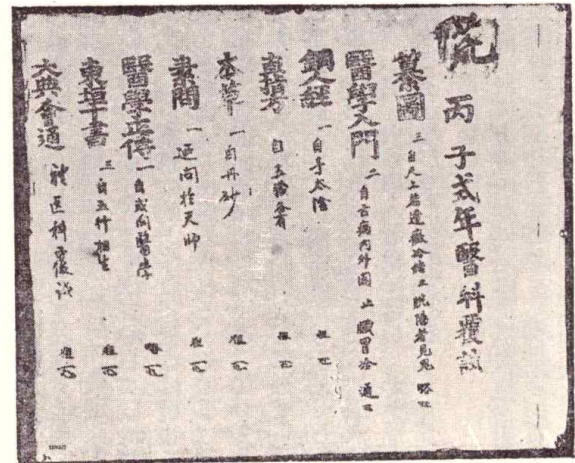
(1416)에 四孟月取才로 바뀌었다. 取才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醫學生徒와 전직 관료인 前銜官, 비정규직으로 임용된 견습 관원인 權知 등이었다. 하지만 시험 전 3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出仕日數가 50일 미만이거나 1년 내에 무단결근이 30일이 넘거나 현재 재직 중이거나 체아직을 받은 뒤 6개월 내 병결이 15일이 넘거나 포럼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取才에 응시할 수 없었다.¹⁵⁾ 取才는 內醫院 醫官, 醫員, 鍼灸醫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지만 시행 시기와 성적의 평가방식은 모두 같았다.¹⁶⁾

取才의 합격여부는 의과시험과 마찬가지로 분수로 계산하였다. 十分 이상은 1등, 六分 이상은 2등, 三分 이상은 3등으로 하여 1등과 2등은 임용하고 3등은 임용하지 않았으며 만일 1, 2등으로 합격한 자가 없으면 자리를 비워두고 임용하지 말 것을 엄히 정하였다. 그리고 取才의 임용 방법으로는 우선 取才한 성적순으로 임용하였으며 만일 取才 성적이 같은 경우에는 병을 고친 실적이 많고 적은 것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만일 取才 성적과 치료실적 모두 같을 때에는 근무 일수에 의거하여 임용하였는데 이는 醫官의 성실성도 임용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과의 좋고 나쁨에 따라 벼슬을 높이거나 낮추는 인사행정이 있던 6월과 12월 兩都目的 取才에서 득점이 많은 자와 判官 이상 1명은 久任官으로 하고 久任官과 教授, 訓導 이외에는 모두 遞兒職을 제수하고 그 다음인 자는 지방의 벼슬인 外任으로 임명하였다.¹⁷⁾

2. 시험지의 실례 및 칠서강과의 비교

醫科 시험문제에 대한 실제 현물은 전래되는 것이 없다. 하지만 三木榮의 저서 『朝鮮醫學史及疾病史』에는 高宗十三年(1876) 丙子式年試에서의 醫科覆試成績表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사진을 전하고 있다. 京城大學圖書館藏이라는 소장처가 적혀 있기 때문에 京城大學의 후신인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해당 자료의 현존 유무를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답

을 얻을 수는 없었다. 추후 비슷한 사료의 조사 및 발굴이 필요한 대목이다.



高宗十三年丙子式年
醫科覆試成績表

紙一葉
凡 55×60cm

(京城大學圖書館藏)

그림 1. 『朝鮮醫學史及疾病史』 高宗十三年丙子式年醫科覆試成績表¹⁸⁾

三木榮의 저서 『朝鮮醫學史及疾病史』에서는 본 사진의 원제목을 高宗十三年丙子式年醫科覆試成績表라고 적어놓았는데 成績表라는 용어는 매우 근대적인 용어이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시험지와 동일한 형식의 시험지로는 文科시험의 初場과 明經科에 사용되는 講紙가 있다. 따라서 위의 자료는 高宗十三年丙子式年醫科覆試講紙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講紙의 형식과 실제 예를 보면 양자의 형식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단지 다른 점은 <그림 1>은 풀로 붙이는 皮封部가 탈락하여 없기 때문에 시험을 본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다르다. 그러므로 위의 사진의 제목에서 醫科覆試成績表는 醫科覆試講紙라고 고치는 것이 옳다.

14) 李洪烈. 「雜科試取에 對한 一考」. 白山學報. 1967;3:352.

15) 『經國大典』 「禮典·取才」.

16) 孫弘烈.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 서울:修書院. 1988:260.

17) 金鎭. 「조선시대 의관선발 - 영조 정조시대 의과방목 분석을 중심으로 -」. 동방학지. 1999;104:15.

18)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東京:醫齒藥出版株式會社. 1962:347.



그림 2. 講紙의 구조도 및 실물의 예¹⁹⁾

高麗시대의 과거시험은 문장의 화려함을 강조하여 詩賦를 잘 짓는 것을 으뜸으로 여겼었다. 하지만 高麗 말기에 朱子學을 수용한 신진사대부 세력은 문장의 화려함 보다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즉 經學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신진사대부들의 지지를 받아 朝鮮을 건국한 太祖는 즉위하면서 高麗의 監試를 폐지하고 3場으로 구성된 文科시험을 공표하게 된다. 이 3場의 시험은 四書五經과 『通鑑』 등에 대한 試講을 第1場, 表文, 章奏, 古賦 등의 다양한 형식의 글을 작문하는 것을 第2場, 제시된 현안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논술한 策問을 제3장으로 하였다.²⁰⁾ 하지만 講經을 강조하면 글을 잘 짓는 사람이 줄어들어 외교에 필요한 문서 등의 작업을 잘 할 수 없어 국익에 저하가 된다는 반대

의견이 등장하고 製述을 강조할 것인가 講經을 강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朝鮮 초기 100여 년 동안의 논쟁주제가 되었다. 결국 文科 初場의 시험방식은 『經國大典』이 성립되는 시기에 文科 初試의 初場은 製述을, 文科 覆試의 初場은 講經을 하는 것으로 결정됨으로써 마무리 되었다. 이 文科 初場의 講經시험 이외에도 講經으로 시험을 본 것은 明經科가 있다. 明經科는 世祖6年(1460)에 成均大司成 徐岡의 건의로 조정의 신료와 성균관 학생으로 출석인 圓點이 70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별시로서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²¹⁾ 정식 시험인 式年試에 明經科가 설치된 것은 成宗9年(1478)이다.²²⁾ 이때에 徐居正은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舉子들이 독서에 힘쓰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經國大典』의 규

19) 한국학중앙연구원. 『시권: 국가경영의 지혜를 듣다』.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326.

20) 『太祖實錄』. 太祖1年(1392) 7月 28日.

21) 『世祖實錄』. 世祖6年(1460) 6月 27日.

22) 『成宗實錄』. 成宗9年(1478) 4月 14日.

정을 바꾸지 말고 式年試 文科 會試의 講經에서 四書五經으로 시험을 보아 7通2略의 성적이 나오면 製述에서의 점수는 상관없이 선발하는 것으로 독립된 과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 건의는 수용되었으며 이후 禮曹에서는 徐居正의 건의에서 더 나아가 文科 初試에서까지 明經科를 시행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올리고 成宗이 이를 허락하여²³⁾ 다음해인 成宗10年(1479) 11월에 明經科의 절차가 확정된다.²⁴⁾

이렇게 明經科를 설치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것은 經學에 밝은 인재를 구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製述에는 능하지 못하지만 經學에 밝은 자를 선발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製述에서의 점수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明經科에서 몇 명이 합격하는지에 따라서 文科 覆試에서의 합격 인원수도 결정되었다. 하지만 明經科 覆試의 합격기준인 四書五經에서의 七通二略이 평생을 바쳐 經學을 공부해야만 도달 가능한 매우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에도 불구하고 많은 舉子들이 明經科에 응시하지는 않았다.²⁵⁾

醫科의 시험 형식이 文科의 初場이나 明經科의 시험방식인 講書 즉 背誦과 臨文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朝鮮時代 과거시험의 전반적인 경향이 화려한 작문실력 보다는 유교경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더 중요성을 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의서의 학습에 있어서 단순한 지식의 암기가 아닌 의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의학이론에 대한 능숙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醫科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醫科의 시험형식이 지필이 아닌 구술시험인 것은 醫科 시험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그러하였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난도를 높임으로써 醫科 응시자에게 수준 높은 의학 학습을 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시험지 실례의 분석 및 고찰

다음으로 <그림 2>의 講紙를 토대로 朝鮮時代의 醫科 시험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실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럼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朝鮮時代 醫科 시험의 특징을 더

욱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의 원문을 판독한 후 적어서 옮기면 다음과 같다.

荒(印) 丙子式年醫科覆試

- ① 纂圖 三 自尺上若逢癥冷結 止脫陽者見鬼 略(手押)
- ② 醫學入門 二 自舌病內外因 止 臟²⁶⁾胃涼 通(手押)
- ③ 銅人經 一 自手太陰 粗(手押)
- ④ 直指方 自五臟各有 粗(手押)
- ⑤ 本草 一 自丹砂 粗(手押)
- ⑥ 素問 一 迺問於天師 粗(手押)
- ⑦ 醫學正傳 一 自或問醫學 略(手押)
- ⑧ 東垣十書 三 自五行相生 粗(手押)
- ⑨ 大典會通 禮 醫科覆試 略(手押)

여기서 위의 ‘荒’자는 천자문 순서로 번호를 매긴 것으로 보인다. 박훈평과 안상우의 연구에 따르면 시험 당일에 千字文의 글자로 제비를 뽑아서 시험 볼 문구를 정한다고 하였다.²⁷⁾ 이는 朝鮮 초기 七書講에서 같은 날 시험 보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범위를 시험보아서 부정행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의 개선사항으로 보인다. 책 제목 아래의 숫자 ‘一’, ‘二’, ‘三’의 의미는 현재로서는 미상이다. 그 아래로는 시험을 본 부분들은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에서 그쳤다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 ‘自~止~’의 형식을 사용한다. 이는 맨 처음 『纂圖脈』과 『醫學入門』에서만 적용이 되며 나머지 부분은 어지서 시작하였다는 ‘自~’의 형식만 사용된다. 하지만 明經科 講書 시험에서 臨文은 한 章 분량을 시험 보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에 준하여 醫科 시험도 한 章 분량 안에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 시험 분량 아래에는 通, 粗, 略으로 성적을 매기고 그 아래의 시험을 진행한 시험관의 手押이 있다.

1) 纂圖 三 自尺上若逢癥冷結 止脫陽者見鬼

講紙에서 언급하고 있는 “自尺上若逢癥冷結 止脫陽者見鬼”이 의미하는 바는 “尺上若逢癥冷結”이란 구절에서부터 읽기 시작하여 “脫陽者見鬼”라는 구절에서 마쳤다는 의미이다.

23) 상계서. 成宗9年(1478) 6月 5日.

24) 상계서. 成宗10年(1479) 11月 12日.

25) 정지연. 「조선 초기 문과 강경과목 연구」. 교육사학연구. 2010;20(1):104.

26) 臟은 腸의 오기로 보인다.

27) 박훈평, 안상우. 「혜민서 관청지 『惠局志』 편제와 내용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27(1):128.

“纂圖”는 『纂圖方論脈訣集成』을 말한다. 이것을 근거로 『纂圖方論脈訣集成』의 문장을 찾아보면 『纂圖方論脈訣集成』 「八裏」의 緩脈에 있는 문장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해당 구절²⁸⁾은 한의학의 진단 방법인 脈診에서 다루는 24가지의 脈象 중에서 緩脈이 어떠한 병적인 상태를 반영하는지 기술하고 있다. 脈診에서 다루는 24가지의 脈象은 크게 七表, 八裏, 九道라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七表, 八裏, 九道の 관계에 대해서는 七表와 八裏가 장부의 表裏와 같은 것이고 九道는 表와 裏의 脈이 서로 通하고 應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⁹⁾ 七表에는 浮, 芤, 滑, 實, 弦, 緊, 洪脈이 八裏에는 微, 沈, 緩, 瀯, 遲, 伏, 濡, 弱脈이 九道에는 長, 短, 虛, 促, 結, 代, 牢, 動, 細脈이 포함된다. 緩脈은 1息에 4번 뛰는 脈으로 脈搏이 고르게 緩하면 平脈이지만 이 완되어 느슨하면 病脈으로 대부분 濕證 또는 脾胃虛弱에서 발생한다.³⁰⁾ 『纂圖脈』은 醫科시험에서 背講을 해야 하는 의서였으므로 수험자는 본 내용을 완벽히 암기하고 그 의미에 대해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2) 醫學入門 二 自舌病內外因 止 臟胃涼

講紙에서 언급하고 있는 “自舌病內外因 止 臟胃涼”은 『醫學入門』 第四卷 「雜病分類·風類·舌」에 있는 문장을 가리키고 있다. 이 시험이 있었던 高宗13年(1876)에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법전인 『大典通編』에 의하면 醫科시험에서 『醫學入門』은 背講을 해야 하는 의서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수험자는 해당 부분을 암송하고 말로 설명해야 했다. 수험생이 背講했던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마도 7언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正文 부분은 암송하고 주석은 읽어서 풀이하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해당 구절³¹⁾은 舌病과 脣病, 牙齒病의 원인 및 관련된 臟腑, 그에 따른 치료 원칙과 처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수험자는 이 글을 외우고 그에 부속된 주석을 읽고 풀이함으로써 자신이 舌病과 牙齒病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銅人經 一 自手太陰

講紙에서 언급하고 있는 ‘手太陰’은 『銅人腧穴鍼灸圖經』 卷之一 「手太陰肺之經」 및 「手太陰肺經左右二十二穴」에 해

- 28) “尺上若逢癥結，夜間常夢鬼隨人。
[希范曰]池曰：寸部脈緩，主腎邪上攻，項筋強痛。關部脈緩，乃下虛，氣不升降而氣結，在腹不能伸舒。尺部脈緩，主腹內冷氣積結，下元冷極，使陽氣衰敗，陰氣獨盛，所以夜夢陰鬼相隨
○難經曰：脫陽者見鬼。”(『纂圖方論脈訣集成』, 「八裏」.) 원문의 확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URL:https://kyu.snu.ac.kr/)의 원문이미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 29) 이대형, 정원모, 고병호, 박희준, 김남일, 채윤영. 「팔요맥을 중심으로 살펴본 『동의보감』 27맥 속성 연구.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15;32(4):153.
- 30)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7』. 서울:경희대학교출판국. 1999:323.
- 31) “舌病內外因可詳，
(心之本脈，系於舌根；脾之絡，系於舌兩旁；肝脈循陰器，絡於舌本；腎於津液，出於舌端。分布五臟，心實主之，故曰：諸經皆會於口。) 外因強短內腫長。
(外感風寒傳經者，則舌苔自白而黃而黑者，死；卒中者，則舌強而短，舌卷不言者，死。大概風用小續命湯，寒用理中湯，熱用甘桔東加防風、枳殼、黃芩。風寒濕舌強者，用白礬、肉桂末等分安舌下，或四卷正舌藥。內因七情氣鬱，腫滿不得息者，金沸草散；久不愈者，黑參丸，外用古霜鹽散；因怒者，單鑊鐵粉塗之。舌腫滿口，氣不得吐者，名木舌，用陳茶、陳白梅，入巴豆七枚，同搗成膏，薄荷水調刷口中，得下咽片時，即下一二行，以粥補住。如生瘡連腮頰腫者，玄參升麻湯。舌腫滿口不能聲，飲食不通者，名重舌，用蒲黃類刷舌上自退。如不能咽藥，即以黃連濃煎，時時呷之，以瀉心火。舌腫如豬胞者，以針刺舌下兩傍大脈，血出即消，切勿刺中脈，令血不止，誤刺以火燒銅筋烙之，血再不止者，死。或醋調鍋煤，敷舌上下，脫去再敷，須臾自消，不食者，亦死。舌腫，舌下有蟲如蛄蝮，臥蠶，頭小白有尾，可燒鐵烙舌頭上即消。舌長過寸者，單冰片末敷之。) 腎虛(火色)淡黑(一二點，宜以生薑蜜水洗紅後，用補腎兼痰火藥)肺痰脹，肝衄(痰熱，舌強壅腫，或短，甘露飲。肝熱舌出血如泉，單槐花末糝之)心脾裂作瘡。(心熱生瘡破裂，單黃連煎湯服；脾熱舌苔乾澀如雪，薄荷蜜冰丸；心脾熱者，升麻葛根湯加薄荷、黃芩、桔梗。) 唇屬脾家病幾般，風潤(動)寒揪(縮)熱裂乾；血虛無色氣瘡腫，齒唇不食療應難。(齒唇緊小，不能開合，飲食不得，不急治則死，外用青皮燒灰，豬脂調搽，仍將青皮灰末，每一錢，酒調服之。又方，用亂髮、蜂房、六畜毛燒灰，豬脂調搽，或橄欖燒灰，或黃柏散。內治，實者，瀉黃散；虛者，菊睛丸；腫者，意以仁湯。) 牙齒 牙齒屬腎胃大腸，(牙齒骨屬，腎之標也，精完則齒堅，腎衰則齒豁，虛熱則齒動。足陽明胃絡脈入齒上縫，止而不動地，喜寒飲而惡熱飲。手陽明大腸絡脈入齒下縫，動而不休，喜熱飲而惡寒飲。) 腎虛滋陰腸胃涼。(多因飲食、色欲過度，以致濕熱上攻，口涌酸水，則牙床不清，而為腫、為痛，或出血，或生蟲，動搖黑爛脫落。大抵齒齦宣露動搖者，腎元虛也，宜滋陰補腎，八味丸、三味安腎丸、虎潛丸；惡寒熱而口臭穢者，腸胃熱也，宜涼藥瀉火祛風，清胃散。)(『醫學入門』 第四卷, 「雜病分類·風類」.) 원문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남일교수의 소장본을 열람하여 확인하였다.

당한다. 본 시험지에서는 ‘自手太陰’이라고 하여 문장이 시작하는 범위만 표시하고 끝나는 범위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講書 시험에서의 시험범위가 대개 한 章인 것을 상가하여 볼 때 手太陰肺經의 流注³²⁾ 및 手太陰肺經의 左右에 있는 二十二穴에 관한 내용³³⁾을 시험 본 것으로 보인다.

인체의 氣血이 운행하는 통로를 經絡이라고 하는데 크게 經脈과 絡脈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인체의 기본이 되는 12개의 經脈을 12經脈이라고 부른다. 인체의 衛氣가 순행할 때에 가장 먼저 手太陰肺經에서 시작하므로 12經脈의 가장 처음에 手太陰肺經을 배치한다. 본 인용문에서는 手太陰肺經의 순환경로와 是動病, 所生病, 이 經에 氣가 盛할 때와 虛할 때의 脈象 차이 등을 열거한 다음에 手太陰肺經에 속하는 穴자리 11자리를 명기하였다. 수험자는 經脈의 순환을 묘사하기 위해 『內經』에서 사용한 다양한 신체부위 용어들에 숙달되어 있어야 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直指方 自五臟各有

『新刊仁齋直指方論』卷之一「五臟病證虛實論」의 첫 구절이다. 앞서 『銅人經』부분과 마찬가지로 문장이 시작하는 부분만 기록하고 끝나는 부분을 명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

디까지 시험을 봤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앞의 예를 본다면 본 편을 넘어가는 분량을 시험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 짐작 할 수 있다. 해당 구절³⁴⁾은 五臟의 병에 대하여 두 단락으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에서 五臟 각각의 臟에 드러나는 병적인 현상들을 나열하는데 이것은 『內經』에서 五臟 각각에 배속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감각기관, 몸의 부위나 색깔, 감정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五臟이 주하는 바를 따라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五臟 각 臟이 병들었을 때 할 수 없는 것과 그 원인, 五臟 각 臟이 싫어하는 것, 五臟 각 臟이 實할 때와 虛할 때의 증상, 五臟 각 臟의 氣가 끊길 때 나타나는 현상, 病證 자체의 虛實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誤診의 염려가 없이 질병을 잘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醫官을 뽑는 시험에서 좋은 주제라고 할 수 있다.

5) 本草 一 自丹砂

시험문제에 표기되어 있는 ‘丹砂’는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第三卷「玉石部上品總七十三種」중 丹砂를 의미한다. 丹砂에 관한 부분³⁵⁾의 원문도 많지만 주석도 매우 긴

32) “手太陰之脈起於中焦，下絡大腸，環循胃口，上膈屬肺，從肺系橫出腋下，下循臑內，行少陰心主之前，下肘中，循臂內上骨下廉，入寸口，上魚，循魚際，出大指之端。其支者，從腕後直出次指內廉出其端。是動則病，肺脹滿膨而喘欬，缺盆中痛，甚則交兩手而脅，是謂臂厥。主肺所生病者，咳嗽上氣，喘渴，煩心，胸滿，臑臂內前廉痛厥，掌中熱。氣盛有餘，則肩背痛，風寒汗出中風，小便數而欠。氣虛則肩背痛，寒，少氣不足以息，溺色變。卒遺失無度。盛者，寸口大三倍於人迎，虛者，則寸口反小於人迎也。”(『銅人腧穴鍼灸圖經』卷之一。「手太陰肺之經」.)

33) “十手太陰肺經左右凡二十二穴
少商二穴，魚際二穴，太淵二穴，經渠二穴，列缺二穴，孔最二穴，尺澤二穴，俠白二穴，天府二穴，雲門二穴，中府二穴。”(『銅人腧穴鍼灸圖經』卷之一。「手太陰肺經左右二十二穴」.) 『銅人腧穴鍼灸圖經』의 원문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남일교수의 소장본을 열람하여 확인하였다.

34) “五臟各有所主，至其病證莫不隨所主而見焉。面赤喜笑，舌破口乾，煩躁掌熱，心痛而嘔，臍上有動氣者，心家病也。面青多怒，脅下痛硬，咳逆目眩，肢節掣急，轉筋洩難，臍左有動氣者，肝家病也。(肝乘脾挾水氣，故咳逆。足厥陰下終於陰器，故洩難。) 面黑而恐，呵欠呻吟，齒痛骨疼，耳鳴精泄，足脛寒，腰脊痛，小腹急疼，瘕泄而裡急後重，臍下有動氣者，腎家病也。面白善嘔，憂愁欲哭，喘嗽氣逆，咽喉不利，灑淅惡寒，時作寒熱，臍右有動氣者，肺家病也。面黃，善思，善噫，善嗜，中脘脹滿，飲食不消，身體腫重，肢節痠疼，怠惰嗜臥，四肢不收，當臍動氣，是非脾家之病乎？東萊先生有曰：肝受病則目不能視，腎受病則耳不能聽，脾受病則口不能食，心受病則舌不能舉。五臟病證，以此觀之，不待智者而後知矣。然而，心之惡熱者何？熱則脈潰濁也。肝之惡風者何？風則筋燥急也。腎何以惡燥？燥則精涸竭也。肺何以惡寒？寒則氣留滯也。脾何以惡濕？濕傷肌肉，肉傷則痿腫也。五臟之病，推原及本，安有不從所受中來哉？是以臟氣有餘謂之實，臟氣不足謂之虛。心實之候：口乾，喜笑，身熱，汗血，痛滿乎臍脅膺背之間。肝實之候：目赤，多怒，頭眩，耳聾，痛引乎兩脅小腹之下。腎實之候：腹脹，體腫，少氣不言，骨痛，飧泄而小便黃。肺實之候：喘促咳嗽，上氣鼻張，脛股肩疼而胸中滿。脾氣一實，必至肢體重著而不舉，腹脹，便秘而苦飢。故曰臟氣有餘謂之實者，此也。心虛則恍惚，多驚，憂煩，少色，咳唾，舌強，腰背痠疼。肝虛則眼昏，胸痛，筋脅拘攣，恐懼面青，如人將捕。腎虛則心懸如飢，胸痛引脊，厥逆，洩變，眇冷，耳鳴。肺虛則呼吸少氣，鼻涕，噎乾，肺中聲鳴，喘之咳血。(唾中有紅線者，此肺損，為熱氣所傷也。若脅下痛而唾鮮血者，此熱氣傷肝也。) 其或吐逆泄利，飲食不消，腹脹腸鳴，四肢無力，則脾虛之證生焉。故曰臟氣不足謂之虛者，此也。大抵實者瀉之，虛者補之，無過不及，以平為期。否則實實虛虛，損不足而益有餘。如東坡先生所謂至虛有盛勢，大實有羸狀。差之毫釐，疑似之間，便有死生禍福之畏。籲！何畏哉？至若心病而直視，面顴，肝病而舌卷，囊縮，腎病而腰折，骨枯，肺病而毛焦，氣出，脾病而臍突，唇反，此則五臟之氣絕也。絕者無復生之理，脫遇岐，扁亦未如之何。雖然，病亦有虛實之證不同耳。邪氣盛則實，精氣奪則虛。脈盛、皮熱、腹脹、前後不通曰五實；脈細、皮寒、氣少、前後泄利、飲食不進曰五虛。諸病出者為虛，入者為實；(陰出乘陽，陽入乘陰。) 言者為虛，不言者為實；緩者為虛，急者為實；(陰主靜則緩，陽主躁則急。) 濡者為虛，堅者為實；癢者為虛，痛者為實。外痛內快者，外實內虛；外快內痛者，外虛內實。其有心腹、皮膚內外俱痛，則按之而止者虛也，按之而痛者實也。經所謂：皮虛則熱，脈虛則驚，肉虛則重，筋虛則急，骨虛則痛，髓虛則墮，腸虛則澹泄。三陽實三陰虛，汗不出；三陰實三陽虛，汗不止。與夫脈浮而緩，自汗惡風，法當解肌；脈浮而緊，無汗惡寒，法當發汗，此表病之一虛一實。脈伏而牢，腹痛秘結，法當下之；脈沉而弱，厥冷自利，法當溫之，此里病之一實一虛。內實之證，心下牢強，腹中痛滿，前後不通，乾嘔而無物出者，死。內虛之證，厥逆煩躁而吐，利不止者，亡。是又不可不知也。故並及之。”(『新刊仁齋直指方論』卷之一。「五臟病證虛實論」.) 원문은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URL:http://kostma.korea.ac.kr/)의 원문이미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35) “[丹砂，味甘，微寒]，無毒，[主身體五臟百病，養精神，安魂魄，益氣明目]，通血脈，止煩滿消渴，益精神，悅澤人面，[殺精魅邪惡鬼]，除中惡腹中毒氣疥癩瘡，[久服通神明不老]，輕身神仙，[能化為汞]，作末名真朱，光色如雲母，可析者良，生符陵山谷，採無時。

문장으로써 평소에 미리 익숙하게 읽어두지 않았다면 비록 책을 앞에 두고 있어도 제대로 대답하기 어려웠을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朱砂는 한의학에서 광물성에 속하는 약재이다. 朱砂는 『神農本草經』에서 上品에 속한다. 『神農本草經』에서 上品은 120여종의 약재가 포함되며 이들은 독성이 거의 없고 오래 복용하여도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朱砂는 수은과 유황의 화합물이기 때문에 만약 가열을 하게 되면 수은 증기를 생성하여 매우 유독해지는 만큼 취급에 주의할 기을여야 하는 약재이기도 하다. 鎮心安神과 清熱解毒을 하기 때문에 임상에서 心火亢盛, 心神不安, 驚悸, 癲癇, 瘡瘍腫毒, 咽喉腫痛, 口舌生瘡의 치료에 쓰인다.³⁶⁾ 이 부분을 시험함으로써 광물성 약재임에도 임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朱砂에 대해 수험자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6) 素問 一 酒問於天師

시험문제로 명기되어 있는 “酒問於天師” 이하 구절은 『黃帝內經素問』 「上古天真論」 제 1장의 일부 문장이다. 시작부분은 나타나 있으나 끝나는 부분은 명기되지 않았는데 講書 시험의 분량이 1장 인 것으로 볼 때 그 분량만큼의 내용³⁷⁾을 다루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黃帝內經素問』 「上古天真論」은 『黃帝內經素問』의 제일 첫 번째 편이다. 「上古天真論」은 구체적인 의학의 치료기술

내용을 다루지는 않지만 자연의 법칙과 그 법칙에 순응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에 대해 논하며 남자와 여자의 시간에 따른 생리적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이 인용문의 부분에서는 상고시대의 사람들이 자연의 법칙에 거스르지 않고 생활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였지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아 수명이 상고시대의 사람들보다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이 내용을 통해 수험자가 양생의 커다란 원칙을 이해하고 있는지 시험하였을 것이다.

7) 醫學正傳 一 自或問醫學

여기서 講紙의 ‘或問醫學’로 시작하는 문장은 『醫學正傳』 卷之一 醫學或問 51개조 중 2개가 있다. 바로 맨 처음 조문과 두 번째 조문 두 가지이다. 이 둘 중 첫 번째 或問이 시험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왜냐하면 두 번째 或問은 『醫學正傳』의 저자 虞搏 개인의 학문적 배경에 대한 것이고 첫 번째 或問은 醫學의 계통에 관한 글이기 때문이다. 『承政院日記』 英祖34년 12월 17일의 기사를 보면 英祖가 醫官 李泰遠에게 의학의 원류에 대해 묻자 李泰遠이 『醫學正傳』에 상세하게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³⁸⁾ 조선시대에 의학의 역사를 논할 때 『醫學正傳』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醫學入門』의 「歷代醫學姓氏」도 이와 같은 계열의 논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범위의 내용³⁹⁾을 보면 의학의 원류는 黃帝와 岐伯

주석: 惡磁石, 畏鹽水. [陶隱居]云按此化爲汞, 及名眞朱者, 卽是今朱砂也. 俗醫皆別取武都仇池, 雄黃夾雌黃者, 名爲丹砂. 方家亦往往俱用, 此爲謬矣. 符陵是涪州, 接巴郡南, 今無復採者, 乃出武陵西川諸蠻夷中, 皆通屬巴地, 故謂之巴砂. 仙經亦用越砂, 卽出廣州臨漳者, 此二處并好, 惟須光明瑩澈爲佳. 如雲母片者, 謂雲母砂, 如樗蒲子紫石英形者, 謂馬齒砂亦好. 如大小豆, 及大塊圓滑者, 謂豆砂, 細末碎者, 謂末砂. 此二種僞, 不入藥用. 當可畫用爾. 採砂皆鑿坎入數丈許, 雖同出一郡縣, 亦有好惡. 地有水井, 勝火井也. 鍊餌之法, 備載仙方. 最爲長生之寶. [唐本注]云, 丹砂大略二種, 有土砂石砂. 其土砂復有塊砂末砂, 體并重而色黃黑, 不任畫用. 療瘡疥亦好. 但不入心腹之藥爾. 然可燒之出水銀乃多. 其石砂便有十數種. 最上者光明砂, 云一類別生一石窟內. 大者如鷄卵. 小者如棗栗, 形似芙蓉, 破之如雲母, 光明照澈, 在窟中石臺上生, 得此者帶之辟惡爲上. 其次或出石中, 或出水內, 形塊大者如拇指, 小者如杏仁(仁의 오기로 보임), 光明無雜, 名馬牙砂. 一名無重砂, 入藥及畫俱善, 俗間亦少有之, 其有磨嵯, 新井, 別井, 水井, 火井, 芙蓉, 石末, 石堆, 豆末等砂, 形類頗相似. 入藥及畫, 當擇去其雜土石, 便可用矣. 別有越砂, 大者如拳, 小者如鷄鴨卵, 形雖大, 其雜土石, 不如細明淨者. 經言末之名眞朱, 謬矣. 豈有一物而以全末爲殊名者也. [今注]今出辰州錦州者, 藥用最良, 餘皆次焉, 陶云出西川, 非也. 灣夷中或當有之. [臣禹錫等謹按藥性論]云, 丹砂, 君, 有大毒, 鎮心, 主尸疰, 抽風. [日華子]云, 涼微毒. 潤心肺, 治瘡疥癩息肉, 服并塗用.”(『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第三卷, 「玉石部上品總七十三種」.) 원문은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URL:http://kostma.korea.ac.kr/)의 원문이미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36)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9』, 서울:경희대학교출판국, 1999:247.
 37) “...酒問於天師曰: 余聞上古之人, 春秋皆度百歲, 而動作不衰; 今時之人, 年半百而動作皆衰者, 時世異耶, 人將失之耶? 岐伯對曰: 上古之人, 其知道者, 法於陰陽, 和於術數, 食飲有節, 起居有常, 不妄作勞, 故能形與神俱, 而盡終其天年, 度百歲乃去. 今時之人不然也, 以酒爲漿, 以妄爲常, 醉以入房, 以欲竭其精, 以耗散其真, 不知持滿, 不時御神, 務快其心, 逆於生樂, 起居無節, 故半百而衰也.”(『黃帝內經素問』 「上古天真論」.) 원문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남일교수의 소장본을 열람하여 확인하였다.
 38) “上謂李泰遠曰, 醫學源流, 汝能知之乎? 歷舉奏之. 泰遠曰, 詳在醫學正傳.”(『承政院日記』 英祖34년(1758) 12월 17일.)
 39) “或問: 醫學源流, 自軒岐以來, 以醫術鳴世, 與夫著書立言, 俾後人之可法者, 幾何人哉? 請明以告我. 曰: 予嘗閱故學士宋公景濂之文而得其說矣, 請陳如下: 夫『黃帝內經』, 雖疑先秦之士根據仿而作之, 其言深而要, 其旨遠以弘, 其考辯信而有征, 是當爲醫家之宗. 下此則秦越人, 和, 緩, 和, 緩無書可傳, 越人所著『八十一難經』, 則皆學『內經』之要而推明者也. 又下此則淳於意, 華佗, 佗之能經鸚鵡, 固亦導引家之一術, 至於刳腹背, 滌腸胃而去疾, 則涉於神怪矣. 意之醫狀, 司馬遷備志之, 其所謂迴風, 杏風者, 今人絕不知爲何病也, 況復求其治療之深旨乎. 又下此則張機之『金匱玉函經』及『傷寒』諸論, 誠千古不刊之妙典, 第詳於六氣所傷, 而於嗜飲食飲罷勞之所致者略而不議, 兼之文本錯簡, 亦未易以序次求之也. 又下此則王叔和, 叔和纂岐伯, 華佗等書爲『脈經』, 敘陰陽內外, 辨三部九候, 分人迎氣口, 條陳十二經絡, 泊夫三焦五臟六腑之病, 最爲著明, 惜乎爲高陽生活以庸陋之脈歌, 遂使其本書不盛行於世也.”

로 시작하며 시대순으로 秦越人과 醫和와 醫緩, 淳于意와 華佗, 張機, 王叔和, 巢元方, 王冰, 王焘와 孫思邈, 錢乙과 龐安常과 許叔微, 上谷의 張元素와 河間의 劉完素와 睢水の 張從政, 東垣 李杲, 吳中の 羅天益과 滄洲의 呂復, 武林의 羅知悌와 丹溪의 朱彥修 등의 의가들이 의학을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의가의 장점과 단점을 열거하여 독자가 무엇을 본받고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英祖가 醫官 李泰遠에게 의학의 원류에 대한 질문을 하자 李泰遠은 『醫學正傳』에 자세히 적혀있다고 하며 『醫學正傳』을 가져와서 英祖 임금 앞에서 읽었다는 『承政院日記』의 기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⁴⁰⁾ 朝鮮時代에서 현대의 醫史學과 같은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수험자의 醫史學 지식을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8) 東垣十書 三 自五行相生

여기서 講紙의 ‘五行相生’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東垣十書·脾胃論』 卷上 「藏氣法時升降浮沈補瀉之圖」의 첫 구절이다. 講紙에서는 문장의 시작 부분에 대해서만 명기하였지만 보통 약 한 장의 분량의 내용을 시험 보았으므로 여기서도 한 장의 분량을 시험 보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東垣十書·脾胃論』은 金代의 의학자 李杲에 의하여 저술된 의서이다. 李杲는 金나라 때 사람이며 號는 東垣이다. 그가 살았던 시기에는 전란이 많이 일어나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지 않았고 추위와 기아를 통해 질병을 얻는 경우가 많아서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李杲는 內傷學說을 세우고 脾胃를 제일 중심으로 삼는 의학이

론을 전개하게 된다. 그는 補中益氣湯 및 여러 처방들을 스스로 창안하고 이용하여 脾胃를 중심으로 몸을 치료하는 것에 능하였기 때문에 후세에 補土派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내용⁴¹⁾에서의 주제는 天地로부터 인체에 이르기까지 중앙인 土와 인체에서 중앙인 脾胃가 서로 상응한다는 것이다. 天地에서 중앙의 土가 天地의 중심이 되며 마찬가지로 인체에서 그와 상응하는 자질을 가진 脾胃도 인체의 중앙에 위치한다. 天地에서 중앙의 土가 陽土와 陰土로 나뉘어 陰陽을 아우르고 또한 五行 중 나머지 4行 속성도 다 겸한 것처럼 인체에서의 脾와 胃가 서로 陰과 陽에 해당하여 陰陽을 아우르고 또한 四臟의 덕목을 두루 갖추어 인체 내에서 升降의 중심이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李杲가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이론을 『黃帝內經』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내용이다. 수험자에게 이 내용을 시험함으로써 李杲 계열의 의학이 갖추고 있는 이론적 배경을 숙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9) 大典會通 禮 醫科覆試

여기서 講紙의 ‘禮 醫科覆試’는 곧 『大典會通』 卷之三 禮典 醫科覆試를 말한다. 醫科의 覆試에서의 규정을 다루는 부분이다. 여기에 들어있는 문장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原’은 『經國大典』의 원문을 말하며 ‘續’은 『續大典』의 원문을 말한다.

【醫科覆試】

《原》【額數】九人으로 하되 本曹에서 本監提調와 함께

又下此則巢元方, 其『病源候』編, 似不為無所見者, 但言風寒二氣而不著濕熱之文, 乃其失也。又下此則王冰, 冰推五運六氣之變, 撰為『天元玉冊』, 周詳切密, 亦人之所難, 苟泥之, 則局滯而不通矣。又下此則王焘、孫思邈, 思邈以絕人之識, 操慈仁惻隱之心, 其敘『千金方』、『翼』, 及粗工害人之禍, 至為憤切, 後人稍闕其藩垣, 亦足以其術鳴, 但不制傷寒之書, 或不能無遺憾也。焘雖闡明『外台秘要』, 所言方証符禁灼灸之詳, 頗有所祖述, 然謂針能殺生人而不能起死人者, 則一偏之見也。又下此則錢乙、龐安常、許叔微, 叔微在准繩尺寸之中, 而無所發明, 安常雖能出奇應變, 而終未離於範圍, 二人皆得張機之粗者也。惟乙深造機之闡奧而擷其精華, 建為五臟之方, 各隨所宜, 謂肝有相火, 則有瀉而無補, 腎為真水, 則有補而無瀉, 皆啟『內經』之秘, 尤知者之所取法也, 世以嬰孺醫目之, 何其知乙之淺哉。其遺書散亡, 出於閩孝忠所集者, 多孝忠之意, 初非乙之本真也。又下此則上谷張元素、河間劉元素、睢水張從政, 元素之與完素, 雖設為奇夢異人以神其授受, 實聞乙之風而興起者焉。若從政, 則又宗乎完素者也。元素以古今病決不能相值, 治病一切不以方, 故其書亦不傳, 其有存於今者, 皆後來之所附會, 其學則東垣李杲深得之。杲推明內外二傷, 而多注意於補脾土之說, 蓋以土為一身之主, 土平則諸臟平矣。從政以吐、汗、下三法, 風、寒、暑、濕、燥、火六門, 為醫之關鍵, 其治多攻利, 不善學人殺人。完素論風火之病, 以『內經』病機氣宜十九條著為『原病式』, 闡奧粹微, 有非大觀官局諸醫所可彷彿, 究其設施, 則亦不越攻補二者之間也。近代名醫若吳中羅益、滄洲呂復, 皆承東垣之餘緒, 武林羅知悌、丹溪朱彥修, 各把完素之流風。又若台之朱佐, 越之滑壽, 咸有著述, 未易枚舉。嗟呼! 自有『內經』以來, 醫書之藏有司者, 一百七十九家, 二百有九部, 一千二百五十九卷, 亦不為不多矣。若夫歷代名醫, 今但舉其最者言之耳, 豈能悉具於斯乎。’(『醫學正傳』, 『醫學或問』)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URL:https://www.nl.go.kr/)의 원문 이미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40) “.....上謂李泰遠曰, 醫家源流, 汝能知之乎? 歷舉奏之。泰遠曰, 詳在醫學正傳.....”(『承政院日記』, 英祖34年(1758) 12月 17日)

41) “五行相生, 木、火、土、金、水, 循環無端, 惟脾無正行, 於四季之末各旺一十八日, 以生四藏。四季者, 辰、戌、丑、未是也。人身形以應九野, 左足主立春, 丑位是也; 左手主立夏, 辰位是也; 右手主立秋, 未位是也; 右足主立冬, 戌位是也。戌濕, 其本氣平, 其兼氣溫、涼、寒、熱, 在人以胃應之; 己土, 其本味咸, 其兼味辛、甘、酸、苦, 在人以脾應之。脾胃兼化, 其病治之, 各從其宜, 不可定體; 肝肺之病, 在水火之間, 順逆傳變不同, 溫涼不定, 當求責耳。”(『東垣十書·脾胃論』, 『藏氣法時升降浮沈補瀉之圖』) 원문은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URL:http://kostma.korea.ac.kr/)의 원문 이미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錄名하여 試取한다 《續》 式年·增廣도 이와 같으며 大增廣이면 二人을 增加한다.

【講書】 初試와 같이 한다.

○ 《續》 典醫監提調는 <單望으로 한다.> 本監官 二人과 함께 試取한다.⁴²⁾

『大典會通』은 高宗2年(1865)에 편찬된 朝鮮時代 최후의 법전이다. 이것은 이전의 법전들인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을 집대성한 것이다. 朝鮮後期 세도정치로 혼란한 시기 속에서 興宣大院君이 통치체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행동 중의 하나로 법전을 편찬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이 『大典會通』이 나오게 된 원인이다.⁴³⁾ 글의 체제는 당시 受敎와 稟奏定式 중 효력이 있는 조항을 모아서 『經國大典』은 “原”, 『續大典』은 “續”, 『大典通編』은 “增”, 새로 추가하거나 누락되었던 조항은 “補”라고 하여 조문의 내력을 밝혔다. 그리고 이전 왕들의 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함부로 “廢”나 “革”자를 쓰지 않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⁴⁴⁾ 위의 인용을 보면 수험자는 자신이 현재 참여하고 있던 醫科覆試의 내용에 대하여 대답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법전이 시험과목에 있는 것은 모든 雜科가 동일하고 武科 및 文科에서도 법전을 시험 보았다. 이는 나라의 관리가 될 사람들에게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을 미리 숙지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III. 결론

조선시대 醫官의 임용은 醫科의 시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醫科 시험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는 대부분 醫科 시험의 제도와 형식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제 이루어진 시험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논문은 조선시대의 醫科 시험이 진행된 방식과 그것을 토대로 이루어진 醫官의 임용 및 승진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 후 三木榮의 저서 『朝鮮醫學史及疾病史』에 남아있는 醫科 시험지를 통해

醫科 시험의 형식과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실제 醫科 시험의 실시에 관한 유물은 三木榮의 저서 『朝鮮醫學史及疾病史』에 실려있는 高宗十三年(1876) 丙子式年試 醫科覆試成績表 한 가지만 현재 파악되어있다. 이 문서는 文科시험의 初場과 明經科에서 사용되는 講紙와 동일한 형식의 문서이다. 그러므로 해당 도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서는 成績表라는 근대적 용어보다는 講紙라는 고유의 용어로 지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文科시험의 初場과 明經科에서 실시된 시험방식인 講書 즉 背誦과 臨文은 유가경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강조가 된 시험방식이었으며 매우 수준이 높은 시험임을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醫科 시험도 이들 시험과 마찬가지로의 형식인 講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醫科 시험이 작문이 아닌 구두시험인 講書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醫科 시험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그러하였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난도를 높임으로써 醫科 응시자에게 수준 높은 의학 학습을 요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시험에 사용된 교재들은 순서대로 『纂圖方論脈訣集成』, 『醫學入門』, 『銅人腧穴鍼灸圖經』, 『新刊仁齋直指方論』,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黃帝內經素問』, 『醫學正傳』, 『東垣十書·脾胃論』, 『大典會通』 등이었다. 각 도서별로 1장 정도의 분량을 시험 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의학의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 및 기초적인 법령을 숙지하고 있는지 시험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오직 한 건의 講紙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존하는 醫科 시험지 더 나아가서 雜科의 시험지 유물이 매우 희귀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고찰은 그 시도 자체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추후 새로운 醫科 시험 관련 사료가 발견될 경우 본 연구를 토대로 더 심도 있는 고찰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 본다.

42) 【醫科覆試】

『原』【額數】 九人, 本曹同本監提調, 錄名試取 『續』 式年·增廣同, 大增廣則加二人

【講書】 同初試

○ 『續』 典醫監提調 <單望> 同本監官二員試取(『大典會通』, 卷之三, 「禮典·醫科覆試」.)

원문은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URL: <http://kostma.korea.ac.kr/>)의 원문이미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43) 정공식, 「대전회통의 편찬과 그 의의」, 서울대학교법학, 2001;41(4):325.

44) 정공식, 상계논문, 336.

참고문헌

- 『承政院日記』
- 『朝鮮王朝實錄』
- 『纂圖方論脈訣集成』
- 『醫學入門』
- 『銅人腧穴鍼灸圖經』
- 『新刊仁齋直指方論』
-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 『黃帝內經素問』
- 『醫學正傳』
- 『東垣十書·脾胃論』
- 『大典會通』
- 『經國大典』
- 『續大典』
-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東京: 醫齒藥出版株式會社. 1962.
- 孫弘烈.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 서울: 修書院. 1988.
- 한국학중앙연구원. 『시권: 국가경영의 지혜를 듣다』.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 김진. 「조선시대 의관선발 - 영조 정조시대 의과방목 분석을 중심으로 -」. 동방학지. 1999;104:1-93.
-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 교육의 변화와 특성」.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14;13(1):33-63.
- 한미경. 「조선시대 의과 입격자 기록물의 계보적 연구」. 서지학연구. 2018;75:193-212.
- 이남희. 「조선후기 의과팔세보의 자료적 특성과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2010;52:231-262.
- 박훈평. 「조선시대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6;29(2):1-16.
-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교육의 변화와 특성-잡학 생도와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14;13(1):33-63.
- 박권수. 「조선후기 관상감 입속자 연구」. 한국사연구. 2019;187:289-324.
- 박훈평. 「19세기 후반 典醫監 醫學生徒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3;26(1):1-7.
- 李洪烈. 「雜科試取에 對한 一考」. 白山學報. 1967;3:323-377.
- 정지연. 「조선 초기 문과 강경과목 연구」. 교육사학연구. 2010;20(1):83-110.
- 박훈평, 안상우. 「혜민서 관청지 『惠局志』 편제와 내용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27(1):119-133.
- 이태형, 정원모, 고병호, 박희준, 김남일, 채운병. 「팔요맥을 중심으로 살펴본 『동의보감』 27맥 속성 연구」.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15;32(4):151-159.
- 정공식. 「대전회통의 편찬과 그 의의」. 서울대학교법학. 2001;41(4):323-345.
-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URL: <http://sjw.history.go.kr/help/inspection.do>).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URL: <http://sillok.history.go.kr>).
-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URL: <http://kostma.korea.ac.kr/>).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URL: <https://www.nl.go.kr/>).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URL: <https://kyu.snu.ac.kr/>)